



# A Dream



어떤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곳이 지구상 어딘가에 있어야만 합니다. 선한 의지와 진지한 열망을 지닌 모든 사람이 세계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 지고의 진리 supreme Truth라는 유일한 권위에만 복종하여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딘가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곳은 평화와 일치와 조화의 장소로서, 인간의 모든 전투적 본능이 오직 자신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정복하고, 자신의 나약함과 무지를 이기며, 자신의 한계와 무능을 극복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곳입니다; 그 곳은 영적 필요와 진보에 대한 관심이 욕망과 열정의 충족이나, 쾌락과 물질적 향유보다 우선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영혼과의 교감을 잃지 않고 완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과 지위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가꾸어 앞서가는 새로운 재능을 일구어내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직위와 직권이 일의 조직화와 봉사의 기회로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경우 모두에게 동등하게 제공될 것입니다. 전체 조직 속에서 지적, 도덕적, 영적 능력은 삶의 쾌락과 권력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키우기 위해 발휘될 것입니다.

그림, 조각, 음악, 문학 등 모든 형태의 예술적 아름다움을 누구나 골고루 누릴 것이며 여기서 오는 즐거움을 누릴 기회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아니라 오직 개개인의 수용능력에 따라 한정될 것입니다.

이 이상적인 곳에서는 더 이상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부와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가치보다 각 개인의 장점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일은 개인의 생계를 벌기 위한 수단이나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일구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전체에 봉사함과 동시에 각자의 생계 수단과 일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약해서, 이곳은 거의 오로지 경쟁과 싸움의 논리에만 근거하는 인간관계가 향상과 협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관계, 진정한 형제애로 대신되는 곳이 될 것입니다.

